

‘버닝썬 추문’, YG 시총 1764억 태워... 엔터株 ‘몸살’

(한달새)

5개 엔터주 시총 4000억원 증발
외국인 SM 123억·YG 99억 순매도
타 소속사까지 불똥... 주가 하락세
‘정준영 몰카’ 등에 약세 지속 전망

최근 한달새 와이즈엔터테인먼트(YG 엔터)의 시가총액은 1764억원이 날아갔다. 버닝썬 추문의 중심에 YG 소속 연예인 승리가 있어서다. 이날 승리는 SNS를 통해 연예계 은퇴를 발표하고 YG엔터와 선을 그었지만 하루만에 227억원의 시총이 날아갔다. YG의 대안주로 급부상하던 에프엔씨엔터(FNC)는 소속 연예인이 버닝썬 추문에 거론되면서 동반 하락세를 기록했다.

12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날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표 엔터주 5개사(JYP, 에스엠, 와이즈엔터테인먼트, 에프엔씨엔터, 큐브엔터)가 평균 4.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5개 엔터주에서 한 달 새 증발한 시총만 4000억원 규모다.

외국인은 엔터주 털기에 나섰다. 이날 들어 외국인은 에스엠과 와이즈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각각 123억원, 99억원어치



〈엔터주 시가총액 추이(2월 11일~3월 12일)〉

종목	12일 증가(원)	시가총액(억원)	한달 수익률	시가 감소폭(억원)
와이즈엔터테인먼트	35900	6529	-21.3%	-1764
에스엠	39050	9002	-18.2%	-2005
에프엔씨엔터	8660	1243	-7.6%	-103
JYP	29950	10600	2.6%	266
큐브엔터	5170	1374	-2.5%	-34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YG엔터테인먼트 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순매도했다.

두 종목은 공모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를 넘어서면서 지난 11일 공모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공모도는 타

인으로부터 주권을 빌려 미리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사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주가가 향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쓰는 투자 기법이다.

버닝썬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다른 회사 소속 연예인까지 거론되면서 엔터주 전반에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투자자들은 엔터주의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 주식 내다팔기에 나서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엔터주는 YG엔터다. 최근 한달동안(2월 11일~3월 12일) 주가는 21.3% 빠졌고 해당기간 날아간 시총만 1764억원이다. 특히 승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면서 주가는 더 크게 하락했다. 한 때 엔터주 대장을 노리던 YG는 JYP엔터 시총의 절반 수준으로 전락했다.

공고한 엔터주 1위였던 에스엠(SM) 역시 버닝썬 태풍을 피하지 못했다. SM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 버닝썬 사태에 휩싸이면서 증권사들은 SM 목표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다. 하나금융투자는 6만70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미래에셋대우는 7만원에서 5만9000원으로 각각 내렸다.

씨앤블루, FT아일랜드 등이 소속된 에프엔씨엔터(FNC) 역시 주가가 5% 이상

빠졌다. 전날 적자전환 공시에 이어 이날 소속 연예인이 승리의 주요 단톡방 멤버로 거론되면서 주가 하락을 이어갔다. 최근 한달 동안 날아간 시총은 103억원이다.

버닝썬 사태에 큐브엔터, JYP엔터의 주가도 된서리를 맞았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전체 엔터주 투심이 악화된 영향이다. JYP는 이날 4.01% 하락했고, 큐브엔터 역시 6.68% 하락했다.

한 증권사 엔터테인먼트 담당 애널리스트는 이번 하락세에 대해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린 격”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엔터주에 거품이 있던 상황에서 버닝썬 사태가 하락을 위한 변명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버닝썬 사태가 마약 유통, 경찰 유착, 탈세의혹, 성관계 몰카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개입된 만큼 쉽사리 가시질 않을 것으로 보고 당분간 엔터주의 약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정준영의 몰카 유포 사건으로 카카오TV 단체방에 엮인 연예인이 공개되면 관련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이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韓, 유럽특허출원 7위... 삼성 3위·LG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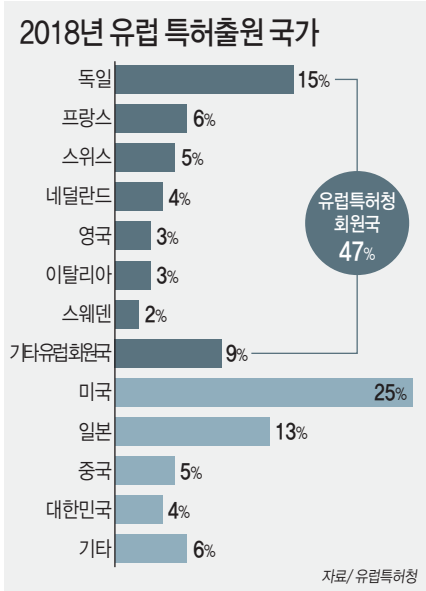
상위 10개국 중 성장률 가장 높아

대한민국이 유럽에서 특허 출원 7위 국가에 올랐다.

유럽특허청은 지난해 대한민국이 유럽에서 7296건 특허를 출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년(6457)과 비교하면 13%나 증가했다. 특허 출원 상위 10개국 중 가장 성장률이 높았다. 최근 6년간 가장 성장세가 높은 결과이기도 하다.

분야별로는 전년과 비교해 생명공학 출원 숫자가 75%나 늘었고, 전자통신과 유기 정밀 화학도 34%나 성장해 두각을 나타냈다. 전자기기(22%), 컴퓨터기술(20%), 디지털 커뮤니케이션(11%)도 대한민국 주력 기술 분야였다.

기업별로는 삼성그룹이 2449건 특허를 출원해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LG 그룹도 2376건으로 삼성전자 뒤를 바짝 따랐다. 삼성은 컴퓨터 기술에서 2위를, LG는 전자기기 및 지구 에너지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분야별로도 특징을 드러냈다.



전체에서 삼성과 LG는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지멘스와 화웨이 다음이었다. 필립스(6위)와 퀄컴(7위), GE(9위) 보다 는 높았다.

그 밖에 포스코(128건), 현대그룹(91건), 두산그룹(54건) 등이 유럽에서 특허 출원 활동을 이어갔다. /김재용 기자 juk@

하나금융투자, 獨 DICP와 파트너십 체결

하나금융투자는 독일 멀티에셋 대체투자회사인 도이치 인베스트 캐피탈 파트너스(Deutsche Invest Capital Partner, DICP)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닥터 루디거(Dr. Rudiger Schmid-Kuhnhofer) DICP사 대표, 스테판 칼름드(Stefan Kalmund) DICP사 전무가 참석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DICP사의 채널들을 활용해 독일 및 유럽전역에 있는 다양한 자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우수한 자산들을 소개할 수 있게 됐다. DICP는 유럽 내 경영전략컨설팅 및 M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왼쪽)과 닥터 루디거 DICP 대표가 12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 비즈니스로 유명한 고츠파트너스(Goetzpartners)의 설립자이자 대주주인 닥터 스테판 고츠와 스테판 생조한서가 2006년에 설립한 투자회사다. /김민호 기자

엔 캐리 늘어나면 주식시장 ‘호재’

제한적 범위 내서 자금 변동 전망
엔화 대출 기업 이자부담 줄 수도

외환시장의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한국 증시와 ‘와타나베 부인(엔 캐리 트레이드)’의 스캔들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G2(미국·중국)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각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캐리 트레이드가 확대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유동성은 늘지만 자산가격 상승, 외채 증가 등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00년대 중반엔 와타나베 부인(엔 캐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스미스 부인(달러 캐리)’의 한국 증시 사랑이 각별했다. 여기에 ‘왕씨 부인’으로 불리는 차이나머니(중국계 자금) 등 바깥 나라 ‘부인’들이 우리 증시를 기웃거리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온 것.

◆외환 변동성 안정적

12일 신한금융투자와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지면서 ‘캐리 트레이드’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주요 10개국(G10) 통화의 대미 환율 평균 내재변동성은 7.3% 수준으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외환시장의 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릴 경우 확대되는 리스크 전환 지표도 2010년 이후 하위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위 연구원은 “외환시장 변동성이 줄면서 캐리 트레이드 유인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각국 중앙은행이 완화적 정책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의 통화정책이 “현재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며 기준금리 변동에 서두르지 않는다는 연준의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엔을 빌려 원화 표시자산에 투자하는 투자 매력도 점증하고 있다. 최근 엔저, 한·일 간 금리 차 등으로 일본 내 투자자들이 원화 채권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기회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것.

그렇다면 와타나베 부인이 바다를 건널 것인가. 경험적으로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어느 시기에 얼마나 유입되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엔 캐리가 활발한 시기에 높은 수익을 쫓아 차익거래에 참여하는 일본 투자자(일명 와타나베 부인)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또 엔 캐리 트레이드의 지역별 투자 강도를 감안할 때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신흥국 중에서는 최근 높은 수익을 내는 터키 리라화를 비롯해 인도 루피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멕시코 페소화, 러시아 루블화, 루마니아의 레우화 등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 한국 등으로도 선별적인 유입을 예상한다.

그렇다면 와타나베 부인은 언제쯤 우리 증시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딜까.

시장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급격한 자금 유입은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자금이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최근 일본계 자금의 움직임은 느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월 기준 일본계 자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13조5650억원으로 지난해 말 보다 5.6% 증가하는데 그쳤다.

◆엔 캐리 확산되면 수출엔 부정적

그러나 캐리자금의 유입은 유동성 공급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경험적으로 단기 핫머니가 유입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엔 캐리 트레이드 확산으로 뒷따르는 ‘엔저’는 한국 경제에 반가운 일은 아니다. 해외에서 일본 제품과 결합하는 품목들이 많아 한국 기업은 수출이 줄어드는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겹치는 수출 품목이 10개 중 6개일 정도(수출 결합도 58.8%)로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연구원에 따르면 원·엔 환율 1% 하락 시 일본과 수출 결합도가 높은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은 0.7~1% 감소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일본의 사업재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대(對) 일본 결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일본에서 부품·소재 기계류 등을 수입해야 하는 기업들은 채산성이 좋아질 수 있다. 또 저금리를 노려 엔화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은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의 한 애널리스트는 “국내 부동산과 자본시장으로 머니 부르가 생겨나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올라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호 기자 kmh@